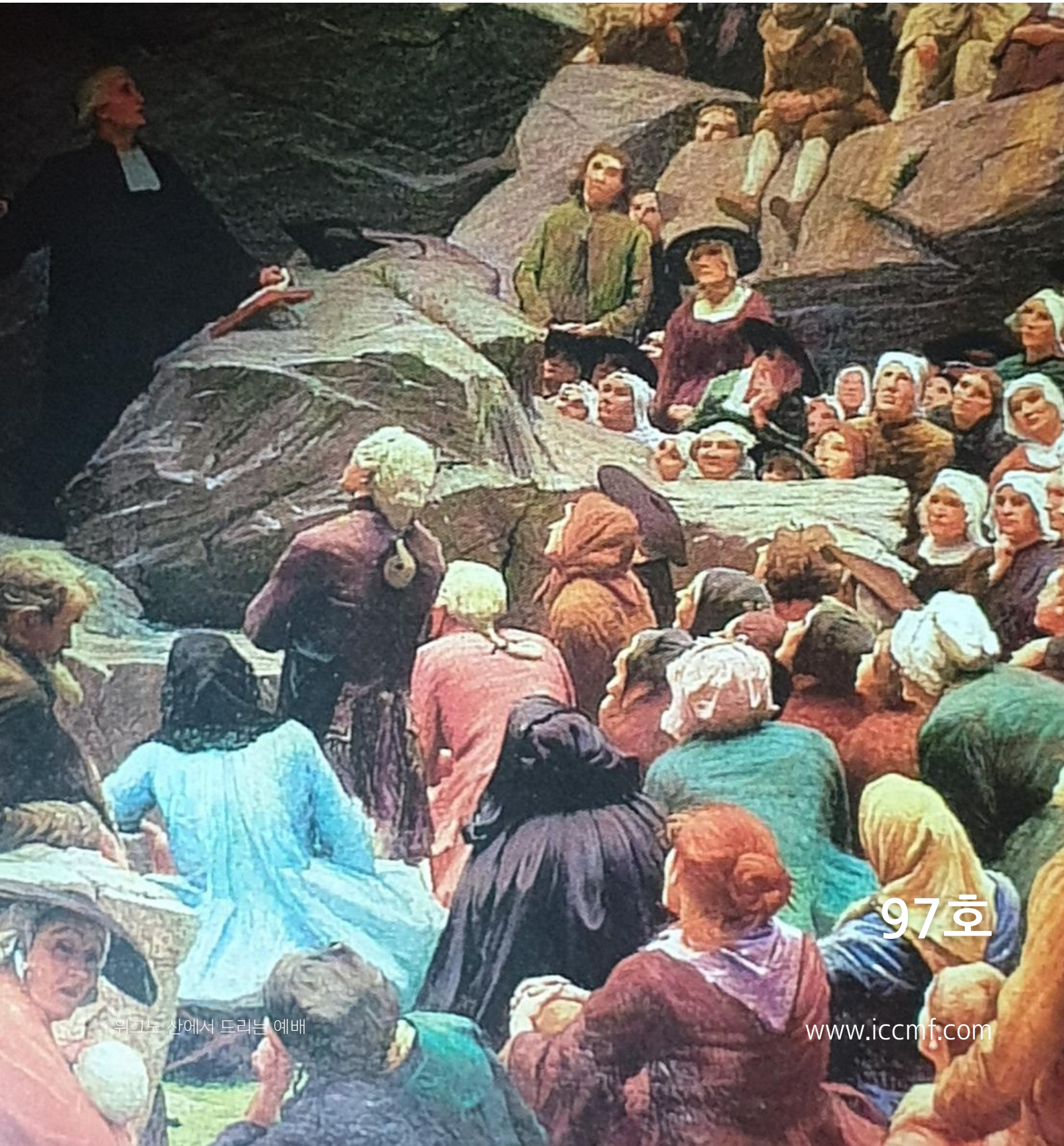
방주 L'arche de CCMF

전 세계 불어권 영혼들을 향한 새로운 삶의 누림



97호

위그노 산에서 드리는 예배

www.iccmf.com

Contents

– 프랑스 사역–

3 **방주 칼럼**

이몽식 대표

6 **프랑스 한인사역자 모임**

한상원 목사

9 **위그노의 역사에서 배우는 선교이야기**

성원용 목사

19 **프랑스 현지인 목회 사역**

한상원 목사

18 **프랑스 지방 사역**

이종선 목사

23 **프랑스 선교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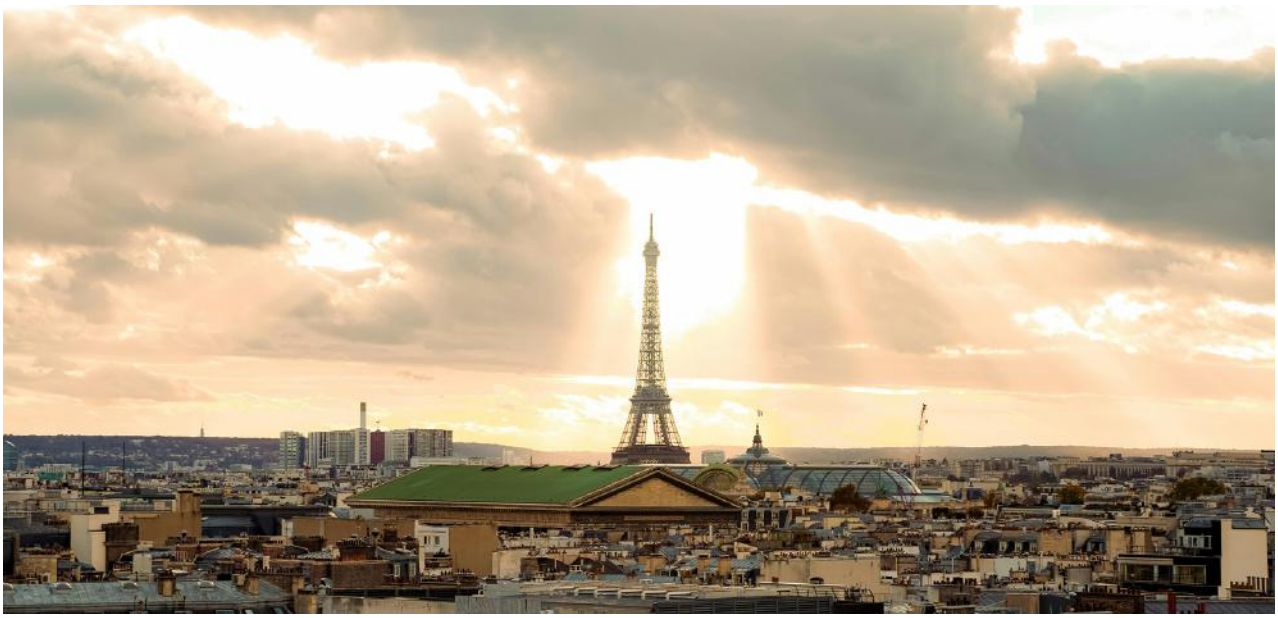
조항덕 선교사

28 **프랑스 맛보기**

유예을 간사

29 **코이노니아**

선교사 동정, 선교회 소식, 후원자



한 해를 돌아보며...
프랑스 특집에 플랫폼 센터의 비전을 나누며...



이몽식 목사(CCMF 대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불어권 선교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묵묵히 들판을 일구어 오신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적 장벽, 문화적 낯섦, 재정의 어려움, 정서적 외로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오늘도 그 땅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 민족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에 매진하신 선교사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도의 무릎으로, 때로는 귀한 물질의 후원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신 모든 후원자분은 우리 사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불어권 선교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결국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기에, 복음 앞에서 무너진 영혼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현장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어권 선교의 관문이자 전략적 교두보 - 파리

이제 우리는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며, 불어권 선교의 전략적 중심지인 '파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파리는 단순히 프랑스의 수도를 넘어 불어권의 영적, 문화적 심장부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파리는 두 가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첫째, 파리는 '불어권 선교의 관문'입니다. 오늘날 파리는 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과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이주민과 유학생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파리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제 파리는 전 세계 불어권 나라를 향한 미션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둘째, 파리는 '사역의 교두보'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파리는 선교 자원의 이동과 정보의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는 전 세계 불어권 선교 현장으로 실핏줄처럼 연결됩니다. 따라서 파리를 복음화하고 이곳에 선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불어권 전체 선교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플랫폼 센터를 꿈꾸며...

이런 전략적 이유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 온 '플랫폼 센터'의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플랫폼 센터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선교 자원이 흐르고 머물며 재생산되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이것은 불어권 선교를 위한 인적, 물적, 전략적 자원이 모이는 중추적인 허브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교육의 거점, 프랑스 사회 안에서 문화 선교의 베이스캠프, 그리고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영적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센터라는 비전이 현실이 되어,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배우고 협력하며 파송되는 거룩한 충전의 장이 될 날을 속히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함께' 걷는 길

선교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불어권이라는 도전적인 선교 현장에서는, 각자의 은사와 자원을 모아 함께 걷는 연합과 협력의 영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수고를 기억하시며,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방을 향한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곧 주께서 먼저 가신 길이며, 우리가 심는 이 씨앗은 곧 영원한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한해 동안 불어권 선교회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2026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불어권 선교의 심장을 세우다!"

불어권 48개국,

복음의 문을 여는 중심.

파리 선교 플랫폼 센터



- 선교사 재교육과 재충전, 리트릿 공간
- 선교 단체/교회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 불어권 선교 현황과 필요를 나누는 정보 허브
- 훈련/포럼/기도회/사역 준비 공간
- 선교사들의 안식과 충전

왜 파리인가?

1. 불어권 세계의 중심지
2.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와의 문화/언어 연결성
3. 유럽 이민 사회와 다음세대 선교의 전략적 위치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한 명의 선교사를 살리고, 한 민족의 부흥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Communauté Chrétienne des Missions pour la Francophonie

문 의 : iccmf@daum.net
02)409-2287



프랑스인들과 함께 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에 관하여



한상원 목사

Fédération des églises évangéliques baptistes

프랑스인 교회 안에서의 초기 10여년 동안에는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특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현지 교단과 초교파적인 노회나 총회에서 타국에서 온 선교사님들끼리 각 나라별로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한국과 관련된 인간적인 조건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민족 다문화의 프랑스인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의 역사, 문화,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한국인 출신 선교사들 간의 교제를 통한 위로, 격려 그리고 협력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쯤에 프랑스 전지역에 흩어져서 다양한 형태로 프랑스 현지인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분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을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당신의 부르심에 따른 선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를 선교 대상지로 여기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조언으로 끝나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저만 혼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

지 않았습니다.

한진, 박정호선교사님과 함께 몇 년 전부터 카톡에서 프랑스 미션(가칭)이라고하는 그룹을 만들어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교제와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지만 갈수록 직접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몽식 목사님으로부터 프랑스 선교에 대한 불어권 선교회의 비전을 듣고 선교사 모임을 제안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후원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고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70여명의 선교사님 중에서 40여명이 넘게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60 Km떨어진 수련회 장소에서 3박 4일을 함께 하려 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말씀과, 선교 상황과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참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분 모두가 자기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기쁨, 감사를나누고, 늘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위로그리고 비전 등을 나누면서 프랑스 개신교의 재활성화를 위한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방향성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만남을 가능하도록 주관하여 주시는 불어권 선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Notre Dame de l'Ouÿe



불어권선교회 동역자분들께

종교 개혁의 후예 위그노의 땅,

그러나 복음의 영적 불모지 프랑스에서

작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한인 사역자 모임"**을

격려하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불어권선교회(CCMF) 대표 이몽식 목사

대 상 | 프랑스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

모임 내용 | 프랑스 사역 나눔

주 제 | 프랑스 개신교 재활력화를 위한 한국인의 역할

일시 | 2026년 4월 14일-17일(3박4일)

장소 | Notre Dame de l'Ouÿe

후원 계좌 : 하나 369-910013-186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Communauté Chrétienne des Missions pour la Francophon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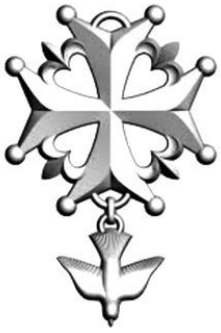
코디네이터 | 한상원 목사

(Fédération des églises évangéliques baptistes)



위그노의 역사에서 배우는 선교 이야기

▲ 위그노 광야예배



▲ 위그노십자가

성원용 목사

파리 선한장로교회 담임
유럽 위그노 선교연구원 대표
선교학 박사(Ph.D)



위그노는 16-18세기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를 일컫는 말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박해받은 사람들"로만 기억되어 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눈물과 추방, 숨어 지낸 광야 시대, 그리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고난의 역사로만 보이기 쉽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흐르고 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역사가 그렇다. 인간의 눈에는 체념과 상실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문명과 공동체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있었다. 위그노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선교가 역사를 통과해 흐르는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생생한 장면이다. 그들은 선교사 파송장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들이 떠난 곳에는 눈물이 있었으나,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다.

떠밀려 나간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다

1685년 낭트 칙령이 폐지되던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길을 떠나야 했다. 그 떠남 속에는 "선교"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을 선교적 파종(Involuntary Sending)으로 바꾸셨다. 사도행전 8장에서 박해로 흩어진 초대교회가 오히려 이방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위그노의 흩어짐도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개혁주의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고, 작은 학교가 세워지고, 인쇄소에서 성경과 책이 흘러나오고, 그들이 가져가 새로운 기술로 산업이 재편되며, 그들의 지식으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도시 전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위그노는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선교의 통로가 되었다. 그들은 예기치 않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새롭게 세워진 비자발적 선교사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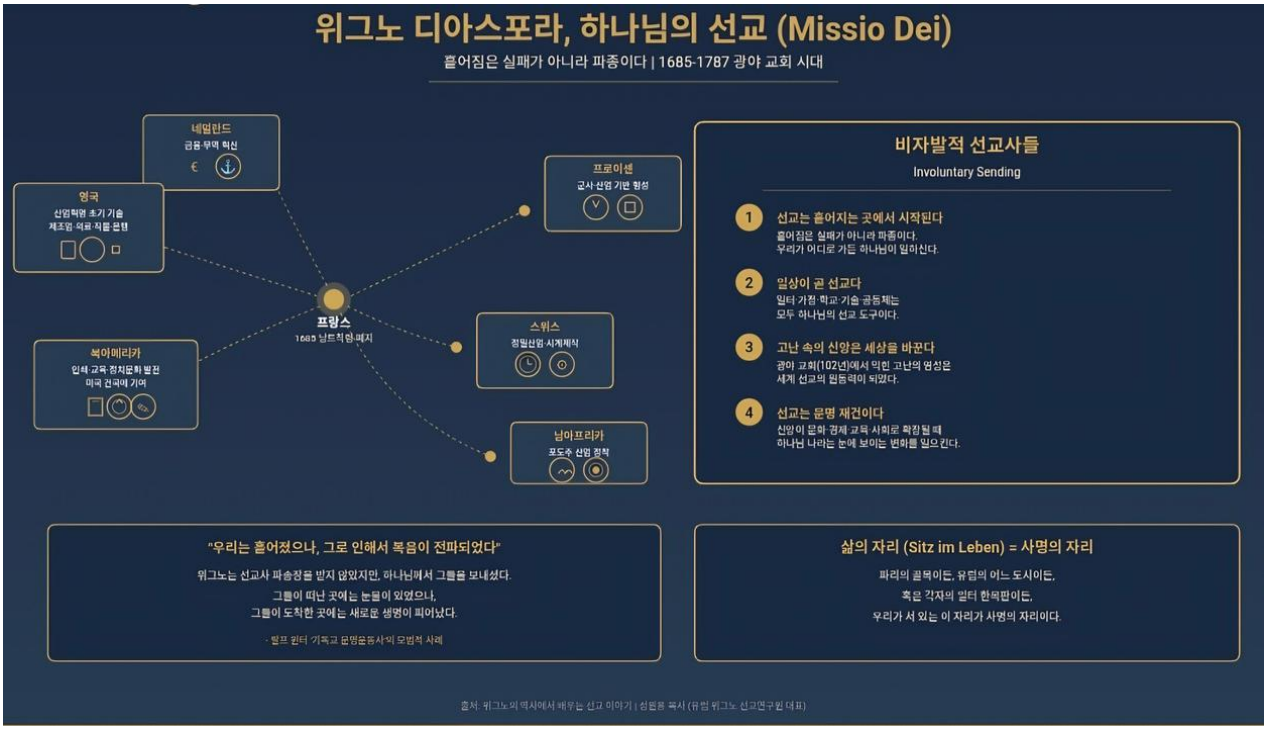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뿌리내리다

위그노는 고향을 떠났지만, 떠난 자리에서 곧바로 신앙적 재건(Reconfiguration of Identity)을 시작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대한 건물이나 조직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다. 숲에서 작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찬송과 문해를 가르치고, 작은 작업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고, 서로 돕고, 돌보고,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이러한 일상의 축적이 디아스포라 위그노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다. 그들은 고향은 잃었지만, 그 고향에서 지켜온 신앙의 중심은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신앙은 새로운 땅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사회·경제의 재건 능력으로 흘러갔다. 그들의 정체성은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심는 사람들"이었다.

▼ 국외로 탈출하는 위그노 환송





문화와 기술, 공동체가 연결된 '초문화적 네트워크 선교'의 역사다.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이동은 단순한 난민 이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지에서 작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자 유럽과 신대륙을 잇는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누군가 기획한 전략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의 삶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선교망이었다. 그 네트워크는 교회만 연결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출판, 기술, 상공업, 공동체적 돌봄, 경제적 협력, 이 모든 요소가 날실(chaine)과 씨실(trame)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룩한 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위그노가 정착한 지역마다 '문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모든 변화는 "선교는 문명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위그노의 발자취는 단지 종교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랄프 윈터가 말하는 "기독교 문명운동사(Christian Civilizational Movement)"의 모범적 사례였다.

네덜란드 — 금융·무역 혁신
스위스 — 정밀 산업·시계 제작의 비약적 발전
영국 — 산업혁명 초기 기술·제조업 기반 강화, 의료·직물·은행업 발전에 기여
프로이센 — 군사·산업 기반 형성
남아공 — 포도주 산업 정착
북아메리카 — 인쇄·교육·정치문화 발전, 미국 건국에 기여

고난의 영성—숨어서 드리는 광야 예배로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

프랑스에 남은 위그노는 102년간의 '광야 교회' 시대를 견뎌야 했다. 그들의 예배는 이름 없는 숲과 양치기 길, 헛간, 동굴에서 드려졌다. 성경 한 권을 소유한 것이 목숨을 건 일이 되었던 시대였다. 만약에 발각된다면 그들의 생명은 위태롭게 되는 일이었다.



▲ 위그노 산에서 드리는 예배

고난의 영성 - 숨어서 드리는 광야 예배로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비밀 예배를 지속했고, 그 은밀한 모임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 깊고 단단하게 빚어냈다. 감시와 박해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그들은 고백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했다.”

그렇게 고난은 그들에게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선교의 언어가 되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삶에서 스며 나오는 ‘선교의 향기’가 되었고, 겉으로 보이는 사역보다 내면에 새겨진 믿음의 깊이가 세대를 넘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다.

오늘의 선교 - 우리는 위그노에게서 무엇을 배우는가?

21세기는 또 다른 종류의 디아스포라 시대다. 전쟁, 경제, 비자 문제, 직업, 학업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그리고 이동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교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 위그노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네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

1) 선교는 “흩어지는 곳”에서 시작된다.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파종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2) 일상이 곧 선교다.

위그노의 일터·가정·학교·기술·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 도구였다. 오늘 우리의 일상 역시 선교의 현장이다.

3) 고난 속의 신앙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광야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고난의 영성은 위그노 공동체 전체를 지탱한 가장 깊은 뿌리가 되었고, 세

계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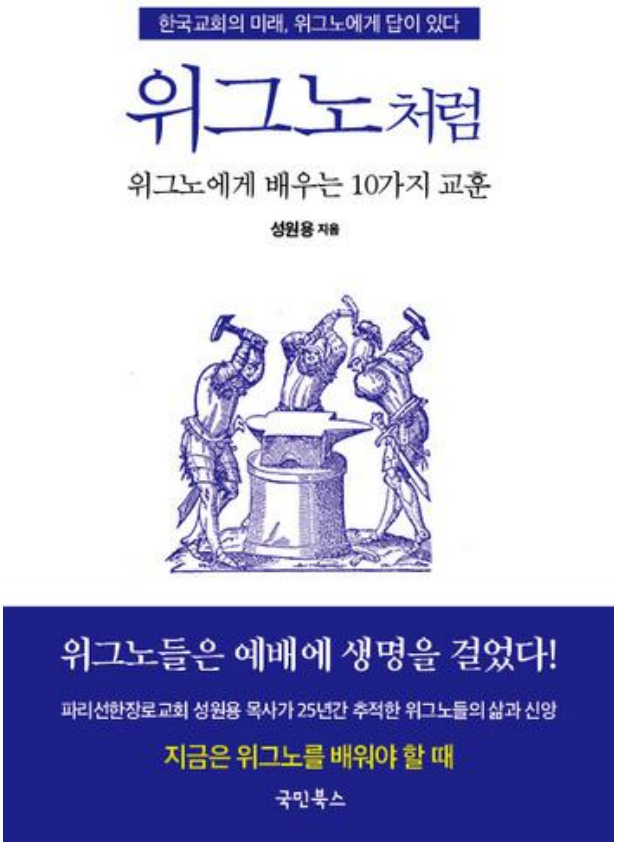
4) 선교는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문명 재건이다.

신앙이 문화를 만나고, 문화가 경제·교육·사회로 확장될 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다.

삶의 자리(Sitz im Leben)가 곧 사명의 자리이다.

위그노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내어 버린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달픈 도피 여정에서, 그들이 정착한 낯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신다는 것을.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증언한다. "우리는 흩어졌으나,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다. "파리의 골목이든, 유럽의 어느 도시이든, 혹은 각자의 일터 한복판이든,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Sitz im Leben)자리가 사명의 자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고단한 나그네 삶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선교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







프랑스 현지인 교회 목회 사역



한상원 목사

Fédération des églises évangéliques baptistes

프랑스로 유학을 온지 몇 주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프랑스 선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1998년 겨울) 2년 후에 프랑스 현지인 신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실습 과정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프랑스인 교회에서 한 프로그램을 매주 담당하는 것, 6주 이상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현장 실습을 하는 것 그리고 일 년 이상 목회자 실습을 하는 것. 무엇보다도 섬길 수 있는 프랑스인 교회를 찾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프랑스 교회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방전도를 통해서였습니다. 프랑스와 프랑스령 국가 출신 신학생들은 복음에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프랑스 현지인들의 태도를 잘 알기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였지만, 저같이 말 못하는 동양인에게는 호의를 베풀며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저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통해서 프랑스인 목회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개혁 교단 내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시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도에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파리 인근 지역에서의 매주 노방 전도를 따라다니면서 프랑스 교회의 상황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2003-2009).

뿐만아니라 자신이 목회자로서 섬기는 교회에서 여전히 불어로 소통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음에도 목회협력회 멤버로서 활동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고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랑스인 성도님들과 연결을 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언어, 문화, 사회에 이방인인 한 동양인을 프랑스 교회안에서 사역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낯선 이방인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추천으로 두번째 실습 과정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있는 개신교 연합 수련회 장소에서 여러 다른 성격의 캠프(초교파 성령 집회, 유대인 메시아 단체, 영국과 프랑스 사도교회 연합 집회, 찬양인도자들 캠프, 기독교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캠프)를 관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세번째 실습 과정을 (2006-2007)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메노나이트 교회는 교인들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집단지도체제형식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 침례교단 지도부와 면접 과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섬겼던 두 교회가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또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신학교 교육을 마친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지 않고 프랑스 현지인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민족 다문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저같이 여러모로 부족한 이방인을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이는데 낯설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침례교단 내에서의 첫 사역지는 중부지방에 있는 부르쥬 (Bourges)였습니다. 첫날부터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성도님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완전 초급 불어로 성경과 신학을 배웠고 단독 목회 경험도 짧은 한 동양인 목사가, 자기 신념에 빠져 제시하는 몇가지의 목회 원칙들을, 외적인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까지, 사랑과 인내로 함께 해 준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12년 동안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부르쥬에서 40분정도 떨어진 비에르종(Vierzon)에서 문을 닫게 되었던 한 그룹을 다시교회 공동체로 세우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매주 한분과 에배를 드렸는데, 한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에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명의 난민 신청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매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오셨고 그들과 함께 점차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쥬에서는 12년, 비에르종에서 8년이 흐른 후 사역지를 옮기면서 비에르종 교회의 후임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찾았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인 출신 선교사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끝날 무렵인 2021년에 스브헝(Sevran) 교회에서 두번째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영적으로 참 교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교인수가 300명이 넘고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고, 그동안 생각해 왔던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강요했던 모습으로 재직자들을 대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직자들과 교리와 교회법으로 부딪치게 되었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결국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고, 목사로서 일 할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찾는 것이 나에게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광야의 넓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목사는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정부로부터의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래서인지 그 광야는 더없이 황량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기도, 찬양, 말씀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의 생각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도시를 바꾸면서 이사를 세번이나 해야 했었고 침례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교단과 접촉하면서 섬길 수 있는 지역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여러 교단의 책임자들과 각 교단의 교회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제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프랑스인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동안의 모든 일이 가능 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파리에서, 아내는 직장 때문에 아이들은 학업 때문에 살고 있었는데, 북쪽으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요한 칼빈 생가 근처의 쇼니(Chauny)에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6세기 요한 칼빈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이 개척한 교회로 프랑스 개신교 교회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프랑스 복음주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역임을 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인, 전통이 중요한 아주 작은 시골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목회자들이 선호하는 사역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성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여전히 간직한 교회입니다.천국을 소망하며, 자신들이 몇 십년을 섬겼던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외국인 출신의 목사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사랑해 주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연륜과 함께 얼마나 경탄스러운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는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업으로 모두가 다 파리에 거주하고 있어서 저 개인, 가족 그리고 교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와 교단의 이해와 지원으로 지금은 파리 근처의 쿠흐브브와 (Courbevoie) 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제가 품는 비전의 크기와 완성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은 깨닫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프랑스인들과는 인간적인 모든 면에서 낯설은 한 동양인이 한 명의 목회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프랑스인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시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프랑스인 형제 자매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프랑스에서의 목회 사역이 계속 되는 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프랑스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때마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리는데 담대한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 지방 사역



▲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쁘와티에 개혁교회 드니목사님

이종선 목사(프랑스)

파리 목양장로교회 담임

지방 사역의 원고 부탁을 받고 개괄적인 부분들로 먼저 글을 쓴다. 1992년 교회 사역 이전부터 프랑스 지방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고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예배와 위로의 말씀을 나누었다. 그 이후로 지인들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방문을 자주 부탁을 받았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한인 입양인들이었다.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들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갔던 도시가 프랑스 북부에 있는 VALENCIENNES, 동쪽 DIJON, 북서쪽에 RENNES, 중부에 있는 Poitiers 그리고 LE MANS, TOURS, LE LUDE, ECOMMOY, 팍트네 등 프랑스 지방이었다. 그리고 독일 DUSSELDORF 지방에도 한 사람을 위해서 2년 정도 방문했다. 이런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만남을 알게 되었다. 특히 Poitiers, Le Lude, Ecommoy는 거의 매주 돌아가면서 방문을 했다.

특별히 Poitiers는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프랑스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매주 금요일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상담했다. 그리고 Poitiers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팍트네'를 들러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루 자고 토요일 Le Mans을 들러서 주일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 뤼지니앙으로 이사를 하고 세자녀 아내와 함께



▲ 수쟌브링크 입양인 세미나, 쁘와티에

그런데 Poitiers 주변 시골에 한국 입양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생각하지 못했던 불행한 한국 입양인들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분노함에 견딜 수가 없었다. 몇 년 후에 나는 기도 중에 Poitiers에서 약 30km 떨어진 Lusignan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로 이사를 했다. 아내와 세 자녀를 데리고 외딴 시골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고 이사를 했다. Poitiers 개혁교회 드니 바티빌 목사님께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고, 내가 Lusignan으로 이사하는데 프랑스 교회 목사관을 구해주신 분이셨다. 드니 목사님은 나의 멘토로서 귀한 만남이 이어졌다.

Lusignan에 살면서 우리 집에서 매주 한글학교를 시작했다. 찾아온 입양인들과 식사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입양인 가정을 방문했다. 입양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중요했다.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역할과 입양인들이 가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입양인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양부모를 가끔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고 함께 했다. 내가 사는 근처에 입양인들은 시골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 정도를 다니며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 한국 입양인 2명을 입양하고 있었는데, 18세까지 국가에서 나오는 자녀 양육비가 시골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또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지방을 가게 되었다.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매년 문화 행사를 하며 프랑스 교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파리에서 500km 정도 되는 지역,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조그만 시골에 사는 한국 사람의 친구를 통해 초청을 받았다. 남편은 프랑스인이고 자녀들도 있었으나 자매의 우울증이 심해 몸무게가 약 30kg 정도로 아주 심한 상태였다. 목사를 만나면서 그를 점령했던 귀신이 물러가면서 그 약한 자매가 조그만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들을 수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했다. 이때부터 나는 무조건 부르는 요청에 본능적으로 가게 되었다.

내가 만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엘리트들이었다. 그렇게 잘나가던 사람들이 인생 밑바닥에서 신음하며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약에 의존하면서 귀신의 역사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겐 충격이었다. 이들 중에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는 지역이 늘어갔고 대부분 한 사람의 어려운



▲ 미리암 알콜중독자 요양소에서



▲ 초창기 지방 선교 모습

처지였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한국 음식이나 라면, 떡 등을 준비하고 그들을 찾아갔다.

우울증이나 알코올, 마약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다. 파리 주변의 A 자매는 증세가 심각하여 가끔 방문하여 기도를 해주고 교제를 나누었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 때 이 자매도 나에게 살려달라고 했다. 자기를 지배하는 귀신의 세력에게 모든 일상이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다. B지역 유학생 남매는 이단을 믿고 있었는데, 지방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이단에서 나오게 했다. 이때부터 지방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있는 한 자매가 새벽에 남자친구의 폭력을 피하여 길거리로 뛰쳐나와 울면서 전화를 했다. 파리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시골이었다. 나는 내가 아는 지역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께 그분의 정착을 부탁했다. 이분은 가장 오래 만난 분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과거의 삶과 주변 여건이 너무 안 좋아 주님께 돌아온다는 생각에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분은 프랑스를 떠나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가장 먼저 세례받은 사진을 내게 보내주었다. 만나지 30년 후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파리 근교에 사는 한 자매는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내가 이분을 만날 때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간다고 말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살려달라고 했던 이 자매를 남편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했다. 뉴욕에서 공부를 했던 이 자매는 처음 교회를 방문한 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했다. 그러나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듯, 이 자매도 어느 날 해서는 안 될 일로 생을 마감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다섯 명이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그러기에 나는 누구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초청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가게 됐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술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술은 기분을 좋게도 하지만 좌절 속에서 우울증과 중독으로 무너지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담대하게 앞당기게 한다. 그래서 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술을 금하라는 말을 자주 한다.

지방을 다니는 데 특별한 후원을 받은 적은 없었고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다. 지방에서 초청이 있을 때면 본능적으로 경비를 빌려서라도 가야 하는 다급함이 있었다. 경비가 부족하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으며 약 2년 정도 그렇게 했다.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거나 서럽지 않았다. 내가 한국에 가면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프랑스 지방에서 만났던 분들이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나누었기에 한국에서도 반갑게 만날 수 있다.



프랑스 내 약 30곳의 지방을 다닌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정기적으로 다닌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다. Poitiers나 Dijon에서는 프랑스 교회의 교육관을 빌려 성경공부를 인도했고, 주일엔 모두를 프랑스 교회로 가게 했다. Poitiers는 약 40명, Dijon은 약 10여 명 정도가 모였으며, 3개월에 한 번씩 모든 헌금을 프랑스 교회에 전달했다. 지방 방문 30년 동안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은 지방마다 한인교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나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소수의 한인이 프랑스 교회를 빌려 따로 예배하는 것이 선교적인 전략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어우러지는 곳인데 선교라는 명분으로 점점 분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Le Lude, Ecommoy, Le Mans 지역의 사역 내용과 2년 동안 노숙해야 했던 사연 , Rennes 지역에서 나타난 기적과 환상 ,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의 실제 상황 등을 나누고 싶다. 30년 사역 속에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ACCPI 한국어교육사역

프랑스 사역의 현장 이야기



조항덕 선교사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지낸 지도 어느덧 7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다양한 모습을 다시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분들이 프랑스를 두고 '선교사의 무덤'이라 표현하신 말이 이제는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분명한 선교적 소명감 없이 이곳에 머문다면 쉽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는 선진국이자 낭만적이며,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관광의 나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이 이어지고, 느린 행정 처리와 척박한 선교 환경, 지속적인 물가 상승, 여기에 더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생활비 급등까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채 쌓여갑니다. 때로는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감당하는 모든 일과 사역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함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까지 6년간 마르세유에서 사역했습니다. 현지인 목사님이 설립한 이민자 언어학교(ELIBR)에서 주로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고, 동시에 한국문화센터(ACCPM)를 설립하여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자동차 부품 절단 도난을 두 번째로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사역지를 변경하여 파리 근교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 이사 장면

4월 16일 사건 발생 이후 6월 27일 이사에 이르기까지,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숨 돌릴 틈도 없이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 파리를 두 차례 방문해 집 계약을 마쳤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집을 전체적으로 수리한 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에는 마르세유와 엑상프로방스에 거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짐을 정리해 차량에 실었고, 저는 밤중에 약 10시간을 운전해 다음 날 아침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파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르세유를 출발해 밤 11시경 리옹 인근에 이르렀을 때, 극심한 피로로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른쪽 귀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맑은 여성의 목소리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며 운전대를 다시 굳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고 다시 출발했을 때에는 왼쪽 귀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이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실제로 들린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한쪽 귀에 들려오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셔서 피로를 이기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10시간의 야간 운전 끝에 새벽 5시 30분경 목적지에 도착했고, 두 시간가량 잠시 쉬었다가 도움을 주러 오신 동료 선교사님들을 맞아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이후 이 경험을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나누었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또 다른 사역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후 처리해야 할 각종 행정 업무와 여전히 더딘 프랑스 행정 절차로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알제리 출신 목사님을 소개받아 노방 전도와 알파 코스 모임에 적극 참여하며 동역자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방 전도를 통해 이 지역 사람들의 심성과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직접 경험하고,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거리 전도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 이를 벗어나면 제재를 받게 되며, 특히 무슬림들과의 만남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견뎌야 합니다. 이곳 사람

들은 대화를 좋아하고 사고가 논리적이며, 어떤 주제든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선교는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기독교인의 관점과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반박할 경우 상처와 갈등만 남기기 쉽기에, 언어 표현뿐 아니라 표정과 태도까지 세심히 살피며 전도지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 노방전도

알파 코스는 이곳에서 처음 경험하는 사역으로, 기존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넘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함께 식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는 매우 실제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저희 부부는 음식 준비와 봉사,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관리인은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젊은이인데, 그에게도 참석을 권했고 단지 내에서 자주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 한국문화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역은 명칭과 소재지 변경이 필요해 여러 차례 신청한 끝에 네 번째 만에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리 지역 한국문화센터(ACCPI: Association Corée Pop Île-de-France)'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으며, 감사하게도 현재 저희가 출석 중인 고블렝(Les Gobelins) 교회 공간에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가 단순한 언어·문화 교육 기관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 센터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마르세유와 달리 한인 선교사들과 한인 교회들이 다수 있어 연합과 공동 사역의 기회도 풍성합니다. 얼마 전에는 파리 한인교회 성도 한 분의 소개로 임종을 앞둔 프랑스 여성 마리 크리스틴(Marie-Christine)을 병문안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파리 15구의 호스피스 병원에서 한인 목사님과 함께 두 차례 방문했고, 이후 저희 부부가 두 차례 더 찾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도 반복해 전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으며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위로의 말에는 조용히 반응했으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끝내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톨릭 문화 속에서 자랐으나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전형적인 프랑스인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열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는 노방 전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지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이며,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사용되는 도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 마리 크리스틴





▲ 노방 전도

파리 지역에서의 새로운 사역 경험 중 하나는 지난 10월 말 열린문(Portes Ouvertes) 협회의 창립 70주년 연례 모임에서 탈북자의 신앙 간증을 통역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간증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며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등 보안이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 북한 땅에서는 복음 전파가 철저히 봉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방 이전 북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은밀히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신앙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열린문 협회는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 현장을 알리고,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고 후원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비정부기구(NGO)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모든 생명을 지켜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한반도가 자유롭게 통일되어, 음지에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양지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복음 전파하는 날을 소망하며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후속 한인 선교사 양성과 파송에 관심을 가진 지인과 함께 사역 계획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프랑스를 비롯한 불어권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프랑스어 연수와 한국 문화를 활용한 선교 방법을 전수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도 우리의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야 비로소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움직일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



유예을 비상임 간사

유학시절, 나는 기숙사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컵밥 장사를 시도했다. 사업자등록도 알아보고 식자재 마트도 직접 다녀보며 나름 준비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아는 한국인 집사님이 여섯 일곱 차례 주문해준 것을 빼고는 주문이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나의 작은 꿈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너무 망설이기만 하다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2년 뒤, 코로나가 발생했다. 당시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진 프랑스는 모두가 우울한 날들을 이어가고 있었고, 나 역시 신학교 기숙사에서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30여 명의 기숙사생들이 함께 격리되어 있었기에 밥도 같이 먹고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덕분에 그나마 덜 외롭고 덜 힘들었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 통행금지령도 완화되고,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함과 무료함에 지쳐가던 무렵이었다. 문득 나는 잊고 있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음식을 만들어서 정말로 팔아 봐야겠다.' 이번에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무작정 뛰어들었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음식을 팔겠다고 선언하고, 목요일에 선주문을 받아서 토요일과 주일에 직접 만든 음식을 방으로 배달해줬다. 메뉴는 매주 새롭게 구상하고 단톡방에 샘플 사진과 함께 공지를 올렸다.

반응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매주 10명 정도가 꾸준히 주문을 했고, 기숙사 사감 선생님과 교회 지인들, 친구 부모님도 주문을 해주셨다. 그렇게 두 달 남짓 동안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판매했다. 처음에 준비했던 배달용기 100개가 다 소진되었을 때, 나는 이 작은 도전을 마무리했다.

사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음식 솜씨를 뽐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다. 공부를 해야 해서 바빴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함에 빠져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던 내게 이 일은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음식을 판매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는 것이다.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고, 사람들도 인정해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도전하고 노력하니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자신을 미워했는데, 이 작은 경험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고 내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바로 거둬가시기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반응하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어 도전할 때 함께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코이노니아

1. 선교사 동정

9.5 조남홍/조연섭 선교사 출국
9.5 차교범/김옥란 선교사 출국
9.8 유사라 선교사 출국
9.24 김홍기 선교사 입국
9.25 서광/이은비 선교사 입국
10.17 B국 신열방 선교사 입국
10.28 B국 황열매 선교사 입국
10.28 정남현 선교사 입국
10.28 이강례 선교사 입국
11.3 B국 신열방 선교사 출국
11.12 강한수/전주영 선교사 입국
11.19 이강례 선교사 출국
11.21 정남현 선교사 출국
11.23 김홍기 선교사 출국
11.25 전경미 선교사 출국
11.25 구혜선 선교사 출국
11.27 강한수/전주영 선교사 출국
12.3 유재동/안정순 선교사 출국
12.23 서광/이은비 선교사 출국

2. 정기기도모임

9월은 A국 아유브 선교사, 10월은 감비아 세네갈 유재동 선교사, 11월은 가봉 김홍기 선교사, 12월은 CCMF 이몽식 목사의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A국
아유브 선교사



감비아 세네갈
유재동 선교사



가봉
김홍기 선교사



CCMF
이몽식 목사

3. 선교회 소식

9.8-9 IMF 훈련
9.11-12 SMF 훈련
9.22-23 PMF 훈련
10.31 PBS 간담회
12.22 IMF 인텐시브 훈련

후 원

미션 미제리꼬듀/긍휼사역

미제리꼬듀는 miséricorde(긍휼)와 Dieu(하나님)를 합친 단어입니다. 모금액은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서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역 내용은 어린이 결연, 맑은물 사업, 배움터 사업, 의료지원 사업, 현지인 사역자 후원입니다.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www.missionfund.org에서 <긍휼사역>을 검색하시면 후원 사이트로 연결됩니다(모바일 가능).

후원 명단

가재울교회 광진교회(강대진 목사) 구산감리교회 (김영선 목사) 마가누가선교회 산곡교회
주향한교회(강정민 심선화 강수화 김은희 전계순 이순금 윤희정) 운천태양교회
빛과소금교회(김정원 고은아 송귀남 신용석 이을선) 염광교회 선교부 염광교회 유초등부
김학규 김봉자(박태진) 김정순 우은하 신경선 이은경 송경자 정세경 김희승 김은희B 박선영



차드 우물



베냉 어린이 결연

선교회 후원

선교회가 발전된 모습으로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www.missionfund.org에서 불어권선교회를 검색하면 쉽고 간단하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가능).

훈련 안내

1) IMF 훈련

불어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불어권선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어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불어권 선교 입문과정

대 상 : 불어권 선교 관심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

2) PMF 훈련

단기 사역자 (1년 미만) 또는 단기 선교사 (1년 이상 2년 미만)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훈련

대 상 : 단기 선교사 훈련 수료자

기 간 : 개별 신청시

3) SMF 훈련

개인적인 부르심과 비전을 확인하고 (사)불어권선교회의 이념과 철학에 동의한 자로서 장기 선교사(4년 이상)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훈련

대 상 : 각 교단 선교부 훈련 또는 GMTC 훈련 수료자

기 간 : 매년 6월

* 단기 팀 선교지 방문시 선교회 본부 또는 각 교회에서 일일 단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4) PARIS BAM SCHOOL

프랑스 파리 및 선교지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 선교 세미나입니다.

대 상 : 비즈니스 멘토링이 필요한 선교 관심자

기 간 : 매년 6월

섬기는 사람들

명예 이사장	홍문수	**이 사 장**	이 웅
부 이사장	최 윤	**대 표**	이몽식
실행이사	홍문수 | 이 웅 | 이몽식 | 차태권 | 박경종		
이 사	김교성 | 김영선 | 김왕곤 | 김인강 | 김종호 | 지찬홍 이권희 | 박경종 | 이상학 | 반경남 | 여오영 | 윤미숙 이정수 | 이시우 | 조성환 | 조동천 | 차태권 | 허경란		
전문이사	이동우(코칭) | 오경호(부동산) | 오강근 채수경(가정사역) 최환열(회계) | 홍석의(의료)		
본 부 팀 장	최혜정 | 고승규		
상임간사	김귀임 | 정세례	**비상임 간사**	유예을

선교사

프 랑 스	다비드 전경미 | 강한수 전주영 | 조항덕 구혜선 이강례 | 정남현 이은경 | 최성필 유선화
차 드	양승훈 최영주 | 김장섭 오은성 | 이은선 | 박진우 정은혜 김혜정 | 서광 이은비 | 조영인 김은혜 | 조진우 노희정
베 냉	최성우 | 차교범 김옥란 | 임성미
토 고	전미자
카 메 룬	강창석 이미숙
카보베르데	조남홍 조연섭
세네갈·감비아	유재동 안정순
A 국	아유브 안나
B 국	신열방 도우리 | 이진리 전하리 | 김평안 이사랑 정다운 | 김별 백합화 | 정빌립 김사랑 | 황열매
필 리 핀	오은주
동원·순회	이정근
동 원	이연숙
순 회	김홍기 박경순(가봉)
불어권 이주민	지스데반 최혜정
은퇴 선교사	박종민 이정자 | 남현균 김차남

후원 계좌 안내

강창석/이미숙: 하나 369-910019-282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강창석/이미숙
강한수/전주영: 하나 369-910019-127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강한수/전주영
김장섭/오은성: 하나 369-910019-351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김장섭/오은성
김별/백합화: 하나 369-910019-162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김**/백**
김혜정: 하나 369-910019-315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김혜정
김홍기: 하나 369-910019-309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김홍기
다비드/전경미: go.missionfund.org/mercijkm 하나 369-910019-08804
박진우/정은혜: 하나 369-910019-321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박진우/정은혜
서 광/이은비: 하나 369-910019-367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서광/이은비
신열방/도우리: 하나 369-910018-894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신**/도**
아유브/안나 : 하나 369-910019-059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안**/한**
양승훈/최영주: 하나 369-910013-420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양승훈/최영주
오은주: 하나 369-910019-299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오은주
유재동/안정순: 하나 369-910019-140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유재동/안정순
이강례: 하나 369-910019-104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이강례
이연숙: 하나 369-910019-201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이연숙
이은선: 하나 369-910019-344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이은선
이정근: 하나 369-910019-231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이정근
이진리/전하리: 하나 369-910019-218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이**/박**
임성미: 하나 369-910019-094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임성미
전미자: 하나 369-910019-276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전미자
정남현/이은경: 하나 369-910019-111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정남현/이은경
정다운 : 하나 369-910019-191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정**
정빌립/김사랑: 하나 369-910019-179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정**/김**
조남홍/조연섭: go.missionfund.org/nhongcho 하나 369-910019-22404
조영인/김은혜 : 하나 369-910019-338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조영인/김은혜
조진우/노희정: 하나 369-910019-156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조진우/노희정
조항덕/구혜선: 하나 369-910014-041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조항덕/구혜선
지스데반/최혜정: 하나 369-910019-071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지스데반/최혜정
차교범/김옥란: go.missionfund.org/beninlove 하나 369-910019-25304
최성우: 하나 369-910019-260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최성우
최성필/유선화: go.missionfund.org/chmission 하나 369-910019-06504
황열매: 하나 369-910019-13304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황**

후원해 주신 교회와 지체들

2025.9.4.- 12.30

홍문수 이 웅 이몽식 이시우 김영선 김인강 김종호 박경종 여오영 최 윤 허경란 이상학 이권희 지찬홍 조동천 강대진 김민영 김성은 김성준 김선환 김은희 김지현 김학규 박영옥 박진영 신지수 신현진 윤영호 윤혜원 임희정 장경훈 정윤욱 정지혜 조복용 조성환 조항덕 구혜선 지스데반 최혜정 황현규 무 명

울산대영교회(조운 목사) 은혜의 샘물교회(윤경화 목사) 캔버라 행복한교회(윤명화 사모)
소망교회(장수호 목사) 열매맺는교회(이완섭 목사) 부안 온누리교회(이순민 목사)
까치산교회(이용학 목사) 은평감리교회(VISION 50)

CCMF 선교사역에 동참하려면

- 기도후원 정기기도모임에의 참여 또는 무릎선교사로 자원하여 기도월력을 보고 불어권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 기도로 후원
- 자원봉사 행정, 사무, 발송 작업, 번역, 자료 수집, 행사도우미, 홈페이지 관리 등 주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 봉사
- 재정후원 정성껏 준비한 정기. 비정기 선교헌금을 교회, 단체, 개인, 전도회 등의 이름으로 헌금, 재정후원을 하실 분께서는 후원자의 거래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물품후원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 도서, 교육자료, 본부 행정 및 사무를 위한 비품 기증 등으로 동역

자동이체 신청 시

본부 후원

- (사)불어권선교회KEB하나272-890016-64704
- (사)불어권선교회 국민은행 533901-04-056678
- (사)한국불어권선교회 우리은행 1005-401-988064

긍휼후원

- (사)불어권선교회 KEB하나272-890022-92704

후원문의

- 02-409-2287, 070-7625-2287

선교관 안내

불어권 선교회는 김왕곤 장로님과 이순자 권사님의 헌신으로 선교관을 마련하여 한국에 잠시 입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5층 각 층에 4개 방으로 총 12개의 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년 50여개국에서 100여명 이상의 선교사님이 선교관을 이용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주차장 확장등 선교관의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선교관이 될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선교관 예약은 카카오채널 CCMF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실



▲지하 예배실



C.C.M.F 사단법인 불어권선교회
Communauté Chrétienne des Missions pour la Francophonie